

2021년 9-1

KIET 경제산업동향

2021. 9

산 업 연 구 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 경제 및 제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8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일본 2분기중 전기비 0.5%, 유로존 2.2% 성장률 기록

- 미국은 7월중 실물·체감지표들의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고용 회복과 인플레이 심화 등이 가시화되면서 연준의 테이퍼링에 관심이 고조
- 일본은 지난 2분기중 소비와 투자가 동반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률(전기비 0.5%)을 기록하고, 유로존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내 주요국들의 플러스 성장에 힘입어 전기비 2.2% 성장
- 중국은 7월 실물지표들이 현저한 둔화세를 나타내는 등 하반기 들어 경제지표들이 부진함에 따라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 달러화는 8월중 연준 관계자들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 9월 들어 테이퍼링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강세 전환 움직임
- 유가는 8월 중순 이후 미국 원유재고 감소세 등으로 반등하고, 9월 들어서는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와 중국 전략비축유 방출 등으로 제한적 상승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5%, 소비 감소·투자 증가

- 7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0.4%)과 서비스업(0.2%)이 전월비 소폭 증가에 그치고, 건설업(-1.9%) 등에서 부진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0.5% 감소
 -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의 동반 감소 여파로 전월비 0.6% 감소한 반면에, 설비투자는 기계류 등이 동반 증가하면서 3.3% 증가

□ 금 융 : 8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둔화, 9월 초순(9.1~9.10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상승

- 8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의 소폭 증가와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인해 전체 규모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

- 국고채(3년) 금리는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 재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1.5%를 돌파
-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와 한은의 금리 인상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 전환과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등으로 다시 상승

□ 산업별 동향 : 7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유지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1차금속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에서 감소하고, 기계장비 등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7.6% 증가
 - 제조업ICT를 제외하고 중공업에서 한 자릿수 증가, 경공업은 감소 전환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운수·창고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숙박·음식점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4.2%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8.4% 증가, 전월비 기준 3.4% 감소

□ 고용 : 7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0% 증가

- 지난 7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의 취업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인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하락세(2.2% → 2.0%)

□ 수출입 : 8월 수출 +34.9%, 수입 +44.0%, 무역흑자 17억 달러

-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4.9% 증가한 532억 달러, 수입은 44.0% 증가한 516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17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성장 품목들(이차전지·SSD·바이오헬스)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

1. 해외경제

□ 미국 : 7월 경제지표 혼조 지속,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에 관심 고조

○ 7월중 생산 확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부문간 혼조세 속에 체감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엇갈린 모습. 고용 회복과 인플레이 심화 등이 가시화되면서 연준의 테이퍼링에 관심이 고조

- 산업생산이 IT생산 정체에도 자동차·부품(전월비 11.2%) 생산이 큰 폭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에, 소매판매는 자동차·부품(-3.9%)을 비롯해 다수 제품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감소세로 전환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고용 확대에도 신규 수주와 생산이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가 2020.3월 이후 최고치(160.3)로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
-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제조업·서비스업에서 동반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하고, 경기선행지수도 지난 2020.5월부터 15개월 연속 상승 지속
- 올 들어 고용 회복과 인플레이 심화 등이 가시화하면서 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델타 변이 확산 등이 변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3	-3.4	4.5 (-2.3)	6.3 (0.5)	6.6 (12.2)				
산업생산 (IT생산)	-0.8 (3.9)	-7.2 (7.1)	2.0 (4.6)	1.0 (3.2)	1.5 (2.6)	0.0 (0.6)	0.8 (0.9)	0.2 (0.4)	0.9 (0.0)
내구재수주	3.5	-13.6	4.7	5.5	3.0	-0.7	3.2	0.8	-0.1
소매판매	3.3	0.3	0.4	8.0	6.5	0.9	-1.4	0.7	-1.1
소비자물가	1.8	1.2	0.6	0.9	2.0	0.8	0.6	0.9	0.5
실업률(%)	3.7	8.1	6.8	6.2	5.9	6.1	5.8	5.9	5.4
무역수지(10억US\$)	-576.3	-676.7	-196.8	-206.1	-208.4	-66.7	-68.5	-73.2	-70.0
ISM 제조업지수 ¹⁾	51.3	52.5	59.1	61.4	60.8	60.7	61.2	60.6	59.5
소비자신뢰지수 ²⁾	128.3	100.9	93.4	96.1	62.3	117.5	120.0	128.9	129.1
경기선행지수 ³⁾	111.6	106.1	109.0	110.6	114.1	113.0	114.4	115.0	116.0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6월 생산·소비 동반 증가, 2분기 전기비 0.5% 성장률 기록

- 6월중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실업률도 소폭 하락하는 등
 실물지표들이 예상외 호조세를 나타내고, 경기선행지수가 2014.2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 지난 2분기중 소비(전기비 0.9%)와 투자(2.3%)가 전분기와
 달리 동반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률(0.5%)을 기록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0	-4.7	2.8	-1.1	0.5				
광공업생산	-2.7	-10.6	5.7	2.8	1.2	1.7	2.9	-6.5	6.5
민간기계수주	-0.9	-8.5	12.9	-5.3	4.6	3.7	0.6	7.8	-1.5
소매판매	0.1	-3.5	0.1	0.4	-2.1	1.2	-4.6	-0.3	3.1
소비자물가	0.5	0.0	-0.6	0.5	0.1	0.2	-0.4	0.3	0.3
실업률(%)	2.4	2.8	3.0	2.8	2.9	2.6	2.8	3.0	2.9
무역수지(10억엔)	-1,668	563	1,959	542	439	658	249	-193	384
경기선행지수 ¹⁾	93.9	89.0	96.6	100.0	103.5	102.4	103.8	102.6	104.1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7월 경제지표 둔화, 주요 기관 올해 中 성장률 전망치 하향

- 7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과 수출 증가율이 상당 폭 떨어지면서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수준에서
 완만한 흐름. 하반기 들어 경제지표 실적이 부진한 데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한 영향 등으로 인해 주요 기관들이 올해 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0	2.3	6.5	18.3	7.9				
산업생산	5.7	2.8	7.1	24.6	9.0	9.8	8.8	8.3	6.4
고정투자(누계기준)	5.4	2.9	2.9	30.3	12.6	19.9	15.4	12.6	10.3
소매판매	8.0	-3.9	4.6	34.0	14.1	17.7	12.4	12.1	8.5
소비자물가	2.9	2.5	0.1	0.0	1.1	0.9	1.3	1.1	1.0
수출(달러화기준)	0.5	3.6	16.9	45.6	30.8	32.3	28.0	32.2	19.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6월 실물지표 혼조 지속, 2분기 역대 성장률 전기비 2.2%

- 6월중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부문간 혼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대 경기체감지수가 2000.5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 올 2분기중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대 주요국들이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2% 성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4	-6.5	-0.4	-0.3	2.2				
산업생산	-1.4	-8.4	4.4	1.1	-0.1	0.6	0.7	-1.1	-0.3
소매판매	2.4	-1.0	-1.2	-1.3	3.4	4.0	-3.8	4.1	1.5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0.3	1.1	1.8	1.3	1.6	2.0	1.9
무역수지(10억유로)	223.0	234.9	75.8	69.3	39.5	17.9	13.3	13.8	12.4
경기체감지수 ¹⁾	107.3	88.7	89.8	92.6	109.6	97.8	107.2	110.0	111.6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 유가 하락세

- 달러화는 지난 8월중 연준 이사들의 테이퍼링 필요성 발언과 파월 총재의 금리 인상 관련 시기상조 발언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이후, 9월 들어서 테이퍼링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강세 전환 움직임
- 유가는 8월 중순 이후 미국 원유재고 감소 지속과 달러화 약세 전환,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등으로 배럴당 70달러까지 반등하고, 9월 들어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 결정과 중국 전략비축유 방출 등으로 제한적 상승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0	2021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10일
엔/달러	103.25	104.68	106.57	110.72	109.31	109.58	111.11	109.72	110.02	109.94
달러/유로	1.2216	1.2136	1.2075	1.1730	1.2020	1.2227	1.1858	1.1870	1.1809	1.1814
미 국채 (10년만기)	0.91	1.07	1.40	1.74	1.63	1.59	1.47	1.22	1.31	1.34
WTI유	48.5	52.2	61.5	59.2	63.6	66.3	73.5	74.0	68.5	69.7
두바이유	50.2	54.3	63.1	62.4	64.5	66.6	73.0	73.3	69.4	70.4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5%, 소비 감소·투자 증가

○ 7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치고, 건설업(-1.9%) 등에서 부진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0.5% 감소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월비 1.6%) 등에서 증가함에도 자동차(-3.9%)와 전자부품(-1.2%) 등에서 감소한 여파로 0.4% 증가에 그치고, 서비스업 생산도 숙박·음식점(-4.8%) 등에서 감소 전환함에 따라 0.2% 증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GDP성장률	2.2	-0.9*	-1.1* (1.1*)	1.9* (1.7*)	6.0* (0.8*)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6.6* (-1.3*)	1.2* (1.2*)	3.7* (3.6*)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6.1* (-0.6*)	12.4* (6.1*)	12.8* (1.1*)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2.9* (3.5*)	-1.8* (1.3*)	-1.2* (-2.3*)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1.5 (1.6)	2.7 (1.7)	7.2* (0.4*)	8.5 (-1.3)	6.9* (-0.2*)	6.5* (1.6*)	4.7* (-0.5*)
광공업생산지수	0.4	-0.4	0.0 (2.9)	4.4 (3.4)	12.7* (-1.2*)	12.2 (-1.9)	14.5 (-1.3)	11.5* (2.3*)	7.9* (0.4*)
제조업생산지수	0.5	-0.3	-0.1 (3.1)	4.4 (3.4)	13.2* (-1.2*)	12.8 (-1.9)	14.8 (-1.7)	11.8* (2.5*)	7.6* (0.0*)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2.0 (0.9)	2.2 (0.7)	5.8* (1.7*)	8.3 (0.2)	4.2 (-0.4)	5.0* (1.6*)	4.2* (0.2*)
소매판매액지수	2.4	-0.2	-1.2 (0.9)	6.4 (1.7)	4.4* (2.7*)	8.7 (2.1)	3.1 (-1.8)	1.6* (1.4*)	7.9* (-0.6*)
설비투자지수	-5.7	6.0	2.8 (0.8)	11.9 (6.9)	12.4* (0.5*)	16.4 (3.1)	11.2 (-2.6)	9.9* (-0.5*)	11.7* (3.3*)
건설기성액	-2.3	-4.1	-5.3 (2.5)	-7.2 (-3.6)	-5.3* (-2.4*)	-3.6 (-2.6)	-6.8 (-2.9)	-5.6* (-0.7*)	-8.1* (-1.9*)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0	112.3	113.6	114.4	116.6*	116.3	116.6*	116.8*	117.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3	98.8	99.4	99.7	101.2*	101.1	101.2*	101.2*	101.3*
선행종합지수(2015=100)	114.6	119.5	122.5	124.7	127.1*	126.3	127.2*	127.9*	128.1*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1	99.6	100.7	101.6	102.5*	102.2	102.5*	102.8*	102.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전월비 1.6%) 판매가 증가한 반면에, 승용차 등 내구재(-2.8%) 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의복 등 준내구재(-2.7%) 판매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월비 0.6%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4.0%)와 운송장비(1.1%)에 대한 투자가 동반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3.3%)한 반면,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2.6%) 공사 실적의 증가에도 토목(-13.4%)에서의 큰 폭 감소로 1.9%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소매판매액 등이 감소함에도 수입액과 서비스업생산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2% 상승(6개월 연속)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수출입물가비율과 재고순환지표 등이 감소함에도 코스피 지수와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함에 따라 0.2% 상승(16개월 연속)

□ 물가 : 8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상승, 전년동월비 2.6% 상승

- 8월 소비자물가는 보건(전월비 -0.1%)과 교육(0.0%)을 제외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2.4%)와 주택·수도·전기·연료(0.3%), 교통(0.8%), 음식·숙박(0.4%) 등 대다수 부문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6% 상승(전년동월비 2.6%)
- 7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1.5%)에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공산품(1.0%)과 서비스(0.4%)도 전월비 상승폭이 동반 확대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상승률이 0.7%로 확대(전년동월비 7.1%, 2011.6월 이후 최고치)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	0.4	0.5	0.4 (0.1)	1.1 (1.2)	2.5 (0.5)	1.5 (0.1)	2.3 (0.2)	2.6 (0.1)	2.4 (-0.1)	2.6 (0.2)	2.6 (0.6)
근원물가	0.9	0.7	0.7 (0.0)	0.9 (0.6)	1.4 (0.6)	1.0 (0.1)	1.4 (0.3)	1.5 (0.3)	1.5 (0.1)	1.7 (0.1)	1.8 (0.3)
생산자물가	0.0	-0.5	-0.2 (0.2)	2.4 (2.6)	6.4 (2.5)	4.1 (1.1)	6.0 (1.0)	6.6 (0.5)	6.6 (0.5)	7.1* (0.7*)	-
근원물가	0.1	-0.1	0.5 (0.5)	2.4 (2.0)	6.0 (2.7)	3.8 (0.9)	5.6 (1.2)	6.2 (0.6)	6.4 (0.5)	6.6* (0.5*)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8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둔화

- 8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중소기업 대출도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폭이 축소
(21.7월 +11.3조원 → 21.8월 +7.9조원, 대기업 +0.3조원, 중소기업 +7.5조원)
 - 대기업 대출은 전월의 계절요인 소멸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
 - 중소기업 대출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데다, 시설자금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전월비 증가 규모는 축소
- 회사채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인해 소폭의 순상환 기조로 전환
(21.7월 +1.5조원 → 21.8월 -0.2조원)
- CP도 전월과 달리 순상환 기조로 전환
(21.7월 +0.9조원 → 21.8월 -0.2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일부 기업들의 기업공개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확대
(21.7월 +1.8조원 → 21.8월 +6.6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21.8월말 잔액
	1~8월	8월	1~8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 은행 원화대출	32.8	3.5	92.0	5.9	65.0	5.1	11.3	7.9	1,041.3
(대 기 업)	-2.2	-1.9	26.0	-0.1	3.9	-1.1	2.3	0.3	175.7
(중소기업)	35.0	5.4	66.0	6.1	61.0	6.1	9.1	7.5	865.6
<개인사업자>	16.1	2.7	34.0	2.7	27.1	3.2	4.2	3.4	413.1
■ 회사채 순발행	12.9	0.1	13.3	1.0	14.9	2.8	1.5	-0.2	..
■ CP 순발행	5.7	0.9	7.1	-0.8	8.7	0.1	0.9	-0.2	37.3
■ 주식발행	4.1	0.5	5.0	0.6	23.1	2.4	1.8	6.6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8월중 금융시장 동향).

- 8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특히 기타대출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전체 증가 규모 역시 전월보다 축소
(21.7월 +9.7조원 → 21.8월 +6.2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고, 집단 대출 취급도 이어진 영향으로 인해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7월 +6.0조원 → 21.8월 +5.9조원)
- 기타대출은 공모주 청약 관련 대출상환 등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 (21.7월 +3.6조원 → 21.8월 +0.3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21.8월말 잔액
	1~8월	8월	1~8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은행 가계대출	34.5	7.4	59.9	11.7	57.5	6.3	9.7	6.2	1,046.3
■ 주택담보대출	26.7	4.6	42.3	6.1	42.3	5.1	6.0	5.9	764.2
■ 기타대출	7.9	2.8	17.7	5.7	15.2	1.3	3.6	0.3	281.1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8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9월 초순(9.1~9.10일) 금리 & 원/달러 동반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지난 8월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8.26일, 25bp)에 이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재개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1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5%를 돌파 (9.1일 1.42% → 9.10일 1.50%, +0.08%p)
- 원/달러 환율은 8월 중순 이후 달러화 약세와 한은의 금리 인상,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9월 들어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강세 전환과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 등으로 상승 (9.1일 1,157.2원 → 9.10일 1,169.1원, +11.9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0				2021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10일
국고채(3년)	1.07	0.84	0.85	0.98	1.13	1.45	1.42	1.40	1.50
회사채(3년, AA-)	2.08	2.25	2.19	2.21	2.06	1.97	1.85	1.83	1.94
CD(91일)	1.10	0.79	0.63	0.66	0.75	0.68	0.70	0.92	0.96
CP(91일)	2.20	1.51	1.11	1.09	1.00	0.97	0.97	1.12	1.12
원/달러	1,217.4	1,203.0	1,169.5	1,086.3	1,131.8	1,126.1	1,150.3	1,159.5	1,169.1
원/100엔	1,130.8	1,116.1	1,112.1	1,054.3	1,027.3	1,022.1	1,048.5	1,057.0	1,065.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7월중 전년동월비 +7.6%, 전월비 0.0%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전년동월비 34.4%), 화학제품(12.4%), 1차금속(16.9%)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에, 자동차(-3.4%)가 4개월 만에 감소한 데 이어, 기계장비(9.5%) 등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7.6%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2.2%)를 제외하고 중공업(9.5%)에서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지고, 경공업(-0.5%) 역시 5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전월비 기준으로는 반도체(1.6%)를 비롯해 기계장비(1.0%) 등이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고, 석유정제(0.2%)와 화학제품(0.3%) 등은 크게 변화가 없는 데다, 자동차(-3.9%)와 전자부품(-1.2%)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보합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4.7)는 금속가공과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에, 반도체와 기계장비, 자동차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월비 1.0% 상승, 전월비 기준으로 0.3% 하락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3.9%로 전월보다 1.4%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증가 폭이 약간 축소(8.4% → 6.4%, 계절조정 기준 전년동기비)되고, 재고 감소 폭도 축소(-5.0% → -3.0%)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1%로 전월에 이어 0.5%p 추가 상승

□ 서비스업생산 : 7월중 전년동월비 +4.2%, 전월비 +0.2%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전년동월비 6.1%), 운수·창고(7.0%), 정보통신(7.1%), 보건및사회복지(5.2%)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숙박·음식점(-7.5%), 전문·과학·기술서비스(-2.0%)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전체 기준 4.2%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1.7%)와 정보통신(2.7%), 보건및사회복지(1.5%) 등에서 증가한 반면, 운수·창고(-0.5%)를 비롯해 숙박·음식점(-4.8%), 전문·과학·기술서비스(-5.2%) 등에서 감소한 여파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8.4%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3.4% 감소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19	2020		2021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7	106.3	112.9	109.8	113.7	110.8	116.3	115.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0.0	4.4	12.7	14.5	11.5	7.9	0.4
제조업 (원지수)	9,484.5	106.6	106.3	112.9	109.1	114.4	111.4	117.2	116.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0.1	4.4	13.2	14.8	11.8	7.6	0.0
섬 유	135.0	-5.9	-10.5	-6.2	-4.5	25.1	29.4	20.9	12.1	2.6
화 학	883.8	-1.3	-3.0	-1.2	2.8	15.6	18.6	16.2	12.4	0.3
철 강	454.3	-2.2	-6.3	-1.5	-1.9	13.3	14.2	20.9	19.4	2.4
반도체	1,285.6	11.7	22.7	12.6	21.9	27.2	26.8	25.8	34.4	1.6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0.8	-3.2	8.7	17.2	8.8	2.7	-5.3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2	28.7	41.7	53.3	21.3	15.4	-6.2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9	9.8	17.0	31.9	38.7	25.6	20.4	-1.1
기계, 장비	819.2	-5.9	3.6	3.7	9.4	18.4	20.4	17.4	9.5	1.0
자동차	981.6	-0.5	-10.0	-2.9	11.2	22.5	28.2	20.4	-3.4	-3.9
조 선	206.3	17.6	8.6	-1.3	-15.6	-17.6	-16.1	-22.3	-24.4	-2.6
- 중 공 업	-	0.6	0.6	0.6	5.5	14.4	16.2	13.4	9.5	0.1
- 경 공 업	-	-0.6	-4.0	-2.9	-0.3	7.4	8.5	4.8	-0.5	-0.2
- 제조업ICT	-	4.8	11.9	8.5	14.0	19.9	21.6	16.4	22.2	1.7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8.4	106.2	110.5	105.9	110.9	109.5	113.6	111.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2.0	-2.0	2.2	5.8	4.2	5.0	4.2	0.2
도소매	211.3	-0.4	-2.6	-1.8	3.1	5.3	2.9	3.8	6.1	1.7
운수및창고	90.3	0.0	-14.2	-13.1	-2.4	11.0	9.0	9.4	7.0	-0.5
숙박및음식점	61.6	-1.0	-18.5	-24.6	-13.1	1.5	-2.1	-0.6	-7.5	-4.8
정보통신	79.9	3.6	1.5	0.0	2.0	3.9	2.9	5.9	7.1	2.7
금융및보험	140.9	1.7	14.0	18.7	15.0	9.7	7.5	9.9	7.4	0.4
부동산	31.8	0.5	5.5	0.5	-2.6	5.7	5.5	3.2	-3.5	-3.7
전문·과학및기술	71.0	1.4	0.1	0.3	2.1	4.2	2.8	3.2	-2.0	-5.2
사업시설관리 등	47.7	2.3	-9.9	-11.7	-3.8	5.5	5.4	5.7	4.9	0.2
교 육	106.0	-0.4	-4.7	-3.9	0.2	3.0	3.3	1.0	2.6	1.4
보건및사회복지	94.3	8.1	1.4	-0.4	0.8	3.1	3.1	3.8	5.2	1.5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0.8	-32.6	-33.3	-18.0	20.8	18.0	12.2	2.0	-5.5
협회·수리및개인	32.1	-1.6	-8.2	-10.4	-1.8	0.3	-3.6	-2.4	1.6	-0.2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0.4	3.3	2.3	0.5	6.1	6.3	5.2	9.5	4.4
- ICT서비스업	-	3.5	4.9	3.4	4.3	4.5	3.6	5.4	8.4	-3.4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7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0% 증가

○ 지난 7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의 취업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인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하락세(2.2% → 2.0%)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회복(-0.2% → 0.1%)
- 반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축소(1.0% → 0.7%)되고, SOC·기타서비스의 취업자도 3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2.7% → 2.5%)
-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폭도 현저히 축소(7.0% → 4.6%)되고, 도소매·숙박 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2.7% → -3.5%)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7.6% → 4.9%)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에도,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9% → 8.3%)과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8.7% → 9.9%), 교육서비스(1.2% → 1.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6.1% → 6.5%)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 규모 역시 확대(3.9% → 4.2%)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3%로 전월보다 하락(2020.8월 이후 최저치)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전 산업	27,123	26,904	26.952	26,369	27,467	26,923	27,214	27,550	27,637	27,648
전년동기비	1.1	-0.8	-1.6	-1.4	2.3	1.2	2.5	2.3	2.2	2.0
농림·어업	4.1	3.6	2.4	-0.2	0.2	-1.8	-0.2	-0.2	1.0	0.7
제조업	-1.8	-1.2	-2.4	-0.6	0.1	-0.3	0.2	0.4	-0.2	0.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1.7	2.9	1.7	3.1	2.9	2.7	2.5
건설업	-0.7	-0.2	2.2	1.7	7.0	4.7	7.3	6.6	7.0	4.6
도소매·음식숙박업	0.0	-5.3	-7.0	-6.9	-2.4	-3.5	-2.2	-2.3	-2.7	-3.5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0.3	1.8	5.2	3.9	5.5	4.4	5.8	6.2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5	0.9	0.2	-0.4	4.3	3.3	4.5	4.6	3.9	4.2
실업률 (계절조정, %)	3.8	4.0	4.3	4.4	3.7	3.9	3.7	3.8	3.7	3.3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8월 수출 34.9% 증가, 수입 44.0% 증가, 무역수지 흑자 17억 달러

○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4.9% 증가한 532억 달러, 수입은 44.0% 증가한 51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성장 품목들(이차전지·SSD·바이오헬스)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

- 수입도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차산품 수입이 대폭 증가한 데다, 국내경기 회복과 함께 중간재와 소비재, 자본재 등의 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10.5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5.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70.6% 상승하고, 도입물량도 1.8%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은 73.7% 증가한 약 60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수출	5,422 (-10.4)	5,128 (-5.4)	1,419 (4.1)	1,464 (12.5)	1,568 (42.1)	512 (41.2)	507 (45.6)	548 (39.8)	554 (29.6)	532 (34.9)
수입	5,033 (-6.0)	4,676 (-7.1)	1,237 (-1.7)	1,363 (12.1)	1,490 (37.5)	508 (33.9)	478 (38.0)	504 (40.7)	537 (38.1)	516 (44.0)
무역수지	389	452	182	102	78	4	29	45	18	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8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13개 주력 품목 수출 두 자릿수 증가율, 10개 품목이 20% 이상 증가

○ 반도체 : 신규 CPU 출시에 따른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로 고용량 D램 주문 확대가 이어지는 데다, 모바일 시장에서의 신규 모델

출시와 파운드리 업황의 호조세 등에 힘입어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친환경차·SUV의 수출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주요 시장에서 백신 접종률 확대와 방역규제 완화 등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으로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 경기 회복과 신차 구매 수요가 이어지는 데다, 우리 기업들의 전략 차종 판매 호조 및 완성차 공장의 가동률 상승세 등에 힘입어 수출도 2020.11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
- **선박류** :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발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후판 가격 인상으로 선가 역시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8월중 다수의 고부가가치 선종이 통관된 영향 등으로 인해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국내 LCD 생산 감축에 따른 출하량 감소에도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는 OLED 시장 확대 및 제품군의 다양화와 OLED를 탑재한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국내 기업들의 신규 폴더블폰이 해외에서도 기록적인 사전예약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서 수요가 이어지는 데다, 평균 판매단가(ASP)도 상승하면서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철광석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나, 철강재 수출단가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자동차·기계 등 전방산업에서 수요 개선세가 이어짐에 따라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섬유** : 동남아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對아세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의류·타이어 등 전방산업들의 호조 등에 힘입어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제품** :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 합의로 인해 유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석유제품 수출단가가 전년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여름철 글로벌 석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화학** : 위생용품·포장재 등 비대면 생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

설·자동차 등 전방산업들의 경기 회복에 따른 합성수지 수출 증가와 의료 용 라텍스·타이어 등 합성고무 수요 등으로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일반기계** : NC선반·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세계 주요국들이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의 건설기계 수출이 동반 증가함에 따라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고급형 프리미엄 가전 판매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시장에서의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는 OLED TV 시장의 확대에 따라 전체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소비자용 SSD 수요가 이어지는 데다, 상반기 채고 소진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서버 증설 수요 및 계약 단가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자동차	5.3	-13.1	1.1	31.5	74.8	73.4	93.7	62.5	12.3	16.9
자동차부품	-2.5	-17.3	3.8	5.6	123.1	99.9	182.1	108.0	35.0	22.4
선박류	-5.2	-2.0	32.1	28.3	11.9	14.4	-15.0	41.3	9.3	38.5
일반기계	-1.9	-8.9	-5.1	-1.4	21.2	17.0	25.7	21.3	18.4	23.5
철 강	-8.6	-14.5	-6.5	7.5	50.7	38.9	62.9	51.6	41.5	53.7
석유화학	-14.8	-16.4	-7.7	26.5	81.0	82.4	93.8	68.7	59.6	81.5
석유제품	-12.2	-40.6	-44.7	-16.6	112.0	99.9	169.1	82.9	73.0	54.9
섬 유	-8.0	-13.3	-6.6	-8.3	46.0	46.5	57.1	36.4	17.6	19.3
가 전	-3.8	0.7	19.2	15.8	66.5	69.3	89.3	47.5	29.7	12.3
무선통신기기	-17.6	-6.4	11.9	21.6	38.5	79.7	41.2	3.4	5.0	62.2
컴퓨터	-20.6	57.2	8.5	2.8	8.9	1.6	7.5	16.5	26.4	26.1
반도체	-25.9	5.6	18.7	14.0	29.7	30.2	24.5	34.4	39.6	43.0
디스플레이	-17.0	-12.2	17.8	16.3	36.0	43.5	38.6	28.2	38.0	23.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8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 경제 및 제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1.8.22일)

□ 최근 환율 추이 및 전망

-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강세 흐름과 델타 변이 추가 확산 우려, 위안화 강세 속도 조절,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여파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면서 원화 약세가 지속중
 - 올 들어 원화 가치는 미 달러화에 대하여 연초 대비 5.5% 하락하면서 일본 엔화(-5.6%) 다음으로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로화(-3.0%)나 중국 위안화(-0.02%)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하락세가 가파른 편
-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의 국내주식 순매도와 무역흑자 규모 축소,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 기조(원화 약세) 유지 전망
 - 다만,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더 강하거나 통화 긴축이 더디게 이루어질 경우, 달러화 강세와 신흥국 통화 약세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

□ 환율 변동과 제조업 수익성

- (수출민감도) 국내 생산활동 기준 한국경제의 순수출 익스포저는 2016년 이후 수입 중간투입물이 수출 비중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하락
 - 수출비중이 2016년 17.9% → 2019년 17.4%로 0.5%p 하락한 반면에, 수입 중간투입물이 2016년 11.5% → 2019년 12.3%로 0.8%p 상승하면서 그 차이로 나타나는 순수출 익스포저는 2016년 6.4% → 2019년 5.1%로 하락
- (영업이익률) 원화 가치는 제조업 영업이익률과 음(-)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산업연관표 통한 분석에서도 원화 가치의 10% 절하는 제조업 영업이익률을 1.27%p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
 - 과거 원화 절상 기간(2010~14년)중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5%p 하락하고, 최근의 원화 절하 기간(2014~18년)에는 영업이익률이 3.1%p 상승
 - 영업이익률 변동요인의 분해 결과, 원화 절하(10%)로 인한 수출 증가는 영업이익률에 +3.4%, 수입 원재료비 증가는 -2.1%의 영향을 각각 초래
 - 수혜 업종으로는 기계및장비,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이며, 피해 업종으로는 석탄및석유, 제1차금속, 음식료품 등
- (수출단가 조정여력) 환율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나타내는 원화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도를 추정한 결과, 국내 제조업의 수출가격 전가도는 0.46
 - 수출가격 전가도가 제조업 평균치보다 높은 업종은 석탄및석유, 화학제품, 제1차금속 등으로 나타나고, 제조업 평균치보다 크게 낮은 업종으로

는 운송장비, 기계및장비, 음식료품, 섬유및가죽, 전기장비 등

□ 환율 변동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 (생산자물가 변동) 원화 가치가 모든 외국통화에 대하여 10% 하락하는 경우, 국내 생산자물가는 2019년 기준 평균적으로 전산업에서 연간 2.5%의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제조업은 3.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업종별로는 석탄및석유제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비철금속및제1차제품과 기초화학물질, 통신·방송및영상·음향기기, 가죽제품 등의 순서로 큰 반면에, 담배와 음료품, 기타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은 낮은 편
- (금융위기 직후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의 영향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10년과 비교해 보면, 전산업에서는 2010년 3.0% → 2019년 2.5%, 제조업의 경우에는 2010년 4.1% → 2019년 3.4%로 모두 축소

< 원화 절하에 따른 제조업 수익성 변화 > < 업종별 생산자물가 파급효과('19) >

	업종명	영업이익률 변화분(%p)	수출가격 전가도			물가파급효과
집중피해	석탄및석유	-2.4	-1.391	상위5대	석탄및석유제품	6.5%
	제1차금속	-0.2	-0.603		비철금속및제1차금속	6.1%
부분피해	음·식료품	-0.6	-0.189		기초화학물질	5.9%
	금속가공제품	0.7	-0.288		통신·방송및영상·음향	5.3%
	섬유및가죽	0.2	-0.202	가죽제품	4.9%	
부분수혜	화학제품	1.4	-0.702	하위5대	금속가공	2.5%
집중수혜	전기장비	1.3	-0.270		전기장비	2.3%
	운송장비	2.4	-0.139		운송장비	1.9%
	기계및장비	3.5	-0.146		기계·장비	1.6%
	컴퓨터·전자및광학	2.5	-0.388		컴퓨터·전자및광학	0.8%
제조업 전체		1.3	-0.464	제조업 평균		3.4%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		2.5%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시사점

-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화 약세 기조는 일부 업종들의 경우에 수출단가 조정여력을 감안시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일부 업종들은 피해 확대 가능성도 있어 대응책이 필요
 - 원화 절하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반면에, 수출단가 조정이 어려워 상대적 이익이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전기장비, 운송장비, 기계및장비, 컴퓨터·전자및광학 등이 있으며, 영업이익 증가에도 수출단가 조정으로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상쇄되는 업종으로는 화학제품 등이 있음.
 - 원화 절하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와 수출단가 조정으로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업종으로는 석탄및석유, 제1차금속 등이 있어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 차원에서의 환리스크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 (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9.13)	(9.14)	(9.15)	(9.16)	(9.17)
	 7월 산업생산(수)  8월 소비자물가	 8월 산업생산  8월 소매 판매  8월 고정투자  7월 기계수주  7월 소매판매(수)  7월 산업생산  8월 산업생산  8월 고용동향	 8월 무역수지(잠)  7월 수출입통계  8월 소매 판매	 8월 소비자물가(수)
(9.20)	(9.21)	(9.22)	(9.23)	(9.24)
	 BQI 통화정책회의  연준 FOMC(-9.22일)		 8월 경기선행지수	 8월 소비자물가  8월 소비자물가
(9.27)	(9.28)	(9.29)	(9.30)	(10.1)
 7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8월 내구재수주(잠)	 9월 소비자신뢰지수  9월 소비자동향조사	 8월 무역수지(수)  9월 경제체감지수	 8월 산업생산(잠)  8월 소매판매(잠)  8월 실 업 률  2L2분기 실질GDP (확 정 치)  9월 가업장기실사지수  8월 산업활동동향	 8월 실 업 률  9월 소비자물가(예)  9월 ISM 제조업지수  8월 개인소비  9월 수출입통계
(10.4)	(10.5)	(10.6)	(10.7)	(10.8)
	 9월 ISM 비제조업지수  8월 무역수지  9월 소비자물가	 8월 소매 판매	 8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9월 고용보고서